

“창업지원 원스톱체계 구축을”

전북도는 9일 도내 창업기업의 성공을 위해 유망 벤처창업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지난 12월 전북도에서 개최한 ‘도전! 투자벤처로드쇼’에서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인정받아 본선에 입상한 창업기업들로 이앤이, 후보, 스텝노블러지, 우리요, 인에코, 래몬, 착한음식, 미ષ빠미요, CCG 등 총 9개 기업이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의 현장 간담과는 다르게 기업들의 입장에서 전북도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솔직한 생각과 개선사항을 격식없이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스텝노블로지 김상규대표는 작년에 전북도 주최로 개최된 투자벤처로드쇼에 대해 “그동안 많은 기관에서 주관한 경진대회를 참가했으나 대회를 끝으로 입상기업들

전북도, 벤처창업 기업과의 소통간담회 개최

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1회성 행사로 그쳤다”며 “그러나 이번 투자벤처로드쇼는 방송을 통해 창업기업이 소개되면서 여러 방면에서 기업홍보 효과를 체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본 행사를 주관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 여러 지원기관이 컨설팅과 마케팅을 동반한 후속조치를 함께 진행해 창업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앤이 고성호대표는 “전북도라는 공식력 있는 기관이 개최한 경진대회에서 입상을 해 제품의 가치가 덩달아 상승했다”며 “계약을 머뭇거리던 거래처도 결선과정의 동영상 시청한 후 제품을 선택하는 등 홍보효과

가 무엇보다 컸다”고 투자벤처로드쇼의 후일담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개선사항으로는 기업들 간 협업이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점을 꼽았으며, “기업홍보, 공동마케팅 등 협업을 통해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 앞으로 이런 투자벤처로드쇼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도내 창업기업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향후 9개 기업들은 투자벤처로드쇼 후속조치로 전북TP를 통해 기술개발과 사업성장에 필요한 집중적인 사업화 지원도 이뤄진다.

또한 3개 기업은 심사위원으로 평가에 참여했던 창업투자회사로부터 러브콜을 받아 기업 IR과 심사를 거쳐

투자를 진행 중에 있는 기업도 생겨났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김진수 센터장은 “앞으로 체계적인 창업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센터가 전북도 창업지원 기관을 아우르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업종과 사업, 기관 간 벽을 허문 패키지 지원으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이 수출증대와 일자리 확대, 성공창업 등 성과창출의 결실을 맺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창업지원의 원스톱체계 구축을 위해 창업지원 기관 간 연계방안을 위한 협의체도 구성해 편리하고 쉬운,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체제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재용 기자

‘전북투어패스로 한옥마을 가자’

전주시 - 전북경진원, 나들가게 이용고객 대상 증정

전주시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나들가게 2만원이상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전북투어패斯卡드를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행사를 오는 15일부터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전주시 나들가게와 전북도 민선6기 핵심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북투어패스를 통해 고객만족 제고 및 매출향상, 전북 관광 사업 부흥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전북투어패스가 대국민 관광서비스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전주시 나들가게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5곳의 주요 관광지를 24시간동안 방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북투어패스로 한옥마을 가자’ 지역특화사업의 큰 특징 중 하나인 협업이다.

전주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전북투어패스가 도내 전 지역 확대 실시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북도와 전주시 등 각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업으로 이 행사를 통해 전주시 나들가게의 발전과 전북도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경진원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착한소비로 이뤄져 지역소비촉진과 내수진장에 많은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농어촌공, 상반기 농지은행 사업비 752억 투입

농가 경영안정 기여 목적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농지은행 사업비 9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올 상반기에 예산의 80%인 752억원을 관내 농업인에게 지원해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로 했다.

농지은행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쌀 전업농과 2030세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농지매매 및 임대차의 농지규모화사업 369억원, 과도한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한 경영회생사업에 355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과수규모 확대를 위한 과원규모화사업 22억원, 은퇴·이농 희망농가의 원활한 농지매매 지원을 통해 농

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매입비축사업 160억원, 고령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농지연금사업 34억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사업비 신청은 해당 시·군 인근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577-7770에 문의하면 담당자에게 연결돼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본인의 예상 농지연금 수령액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김준채 전북본부장은 “상반기에 농지은행 사업비를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언론이나 현수막 등의 집중홍보를 통해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겨울사료작물, 얼었던 땅 녹으면 눌러주세요

농촌진흥청은 이상기후현상으로 생육이 부진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이하, IRG)와 청보리 등 겨울사료작물에 웃거름을 주고 땅을 눌러주면 생산량을 10% 이상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른 봄 자라기 시작하는 겨울사료작물은 해빙기에 서릿발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마르는(건조) 피해도 예상된다. 땅이 녹는 즉시 롤러 등으로 눌러줘야(진압) 솟구쳐 올라있던 뿌리가 토양과 밀착돼 건조피해를 막을 수 있고 뿌리도 잘 자란다.

겨울사료작물은 생육을 시작할 때 영양분이 필요하므로 겨울나기 뒤 충분한 웃거름을 줘야 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 /인재용 기자

전주롯데백, 비즈니스 균일가전

롯데백화점 전주점 6층 증 행사장에서는 10일부터 14일까지 란제리 인기 브랜드인 ‘비너스’의 ‘1년에 단 한번 균일가전’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이월상품을 30~7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이며, 여성팬티 6,000원, 브라 1만5,000원, 잠옷 2만 9,000원, 슬립 1만7,000원에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비즈니스 균일가전은 특히 중·장년 여성들에게 더 없이 좋은 쇼핑 기회가 될 것”이라며 “1년에 한 번만 진행되는 행사라 행사물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예담채, 국가소비자중심 브랜드대상 3년 연속 ‘영예’

브랜드 홍보·품질관리로 농산물 우수성 널리 알려

전북도와 전북농협의 원예농산물 광역브랜드 ‘예담채’가 9일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북 원예농산물 광역브랜드 ‘예담채’는 전북도와 전북농협을 주축으로 9개 시·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지속적인 브랜드 홍보 및 품질 관리로 안전한 고품질 전북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함으로써 그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예담채’는 이번 수상과 더불어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 장관상을 3년 연속 수상함으로써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그 위상을 공고히 했다.

광역공동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한 ‘예담채’는 2008년 브랜드 출시 이후 2009년 33억원, 2012년 165억원, 2016년 940억원으로 꾸준한 성장을 이뤘다.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브랜드 초기부터 3년간 철저한 브랜드 조직

화교육과 농업인의 체계적인 품질 관리, 전북도의 지원을 통한 광역 통합마케팅으로 판로를 확대했다.

‘예담채’ 브랜드로 출하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전북도를 대표한다는 큰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인 점이 ‘예담채’가 짧은 기간에 전국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원동력이다.

전북 원예농산물 광역브랜드인 ‘예담채’는 소비자 선호도 및 만족도에서 전국1위 브랜드로 등극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산지 생산 농가의 조직화 및 물량의 규모화를 기반으로 지역 및 품목 단위 통합마케팅으로 시장교섭력을 제고해 산지 및 소비시장의 수급 가격조절 기능으로 도내원예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강태호 본부장은 “전북 우수농산물을 도단위 광역브랜드 ‘예담채’를 통해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



전북도와 전북농협의 원예농산물 광역브랜드 ‘예담채’가 9일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을 3년 연속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의 우수농산물을 연중 출하해 광역브랜드로 시장 교섭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에도 전북 관내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판매에 이르기 까지 철저한 품질관리와 안전 관리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농산물의 우수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호

와 만족도를 한 계단 더 끌어올림으로써 소비자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협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며 “농산물 유통과 연합판매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판매농협 구현으로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에 전북농협이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재용 기자

한국 만화계의 새로운 흐름을 이끄는 대표 웹툰 기념우표 4종 총 48만장이 10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판매된다. 우표는 사용하기 편리한 스티커 형태로 강풀의 ‘그대를 사랑합니다’, 주호민의 ‘신과 함께’, 윤태호의 ‘미

한국의 대표 웹툰 우표로 나왔다

생’, 조석의 ‘마음의 소리’ 등 4개 작품이다.

웹툰(webtoon)은 웹과 만화가 결합된

용어로 인터넷을 통해 연재되는 만화를 말한다. 인터넷의 특징을 활용해 창작되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통된

다는 점에서 기존 출판 만화와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영화, 드라마, 게임, 연극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돼 활용되면서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인재용 기자

부안

으로

마실

오세요

주소: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67, 202호

만복건설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扶來福